



1985계군혈청검사 희망농장 신청 접수 84년도 실시농장 방역성과 커 계속사업 희망

- 1월말까지 본회 편집국으로 접수 -

본회는 계군의 건강상태 및 면역수준을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예방차원에서 양계장방역을 실시하여 생산성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85계군혈청검사 희망농장 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

지난 1983년도 하반기 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회 계군혈청검사사업은 신청농장을 질병전문가들이 년중 수시로 방문하여 질병에 대한 상호의견교환과 닭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혈청을 채취 검사함으로써 전염성 질병검사, 세균 및 기생충 검사, 병성감정등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농장에서는 수준높은 전담수의사를 고용한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년중 질병피해의 위협에서 부터 벗어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할 수 있어 지난 2년동안 많은 농장에서 신청이 쇄도, 종계장, 대군농장 등 파급효과가 큰 농장을 선별하여 67개 농장 1,563,000수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다.

금년에도 전문수의사가 신청농장을 방문해 일방사항을 직접조사하고(사료 및 식수의 위생검사) 격일로 매계군당 1% 내외 닭에서 혈청을 채취하여 세균, 기생충 검사, 추백리, 호흡기성 마이코플라즈마, 관절활막염, ND, EDS-'76 닭뇌척수염, 감보로, 계두 등의 질병감염 조사

를 실시하여 검사성적에 대한 종합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개별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금년도는 대상농장의 신청을 받아 GPS농장, 수입종계 사육농장, 일반종계장, 대군사육농장순으로 대상농장을 확정하여 실시할 예정인바 많은 농장의 신청을 바란다.

이 혈청사업은 본회가 주관하고 실시기관은 가축위생연구소이며, 한국사료협회와 축협에서 후원하게 된다.

○신청마감일 : 1985년 1월31일(목)까지

○수수료 : 대상농장 확정후 추후 통보

○신청요령 : 본회 편집국(전화 778-8103~4)에 우선 전화신청 하고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 접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본회 편집국으로문의 바람.

양계산업기반조사요원 보고회개최

- 사업종결에 따라 종합보고회로 -

지난 12월14일, 29일 양일간 12월 정기 양계산업기반조사요원 보고회가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조사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표와 같이 초생추 출하수수가 집계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육계 초생추 출하수수는 약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품명	산란	육용	기타	합계
12월				
11월	1,766,409	10,483,376	43,900	12,293,685
12월	1,559,392	10,653,776	44,000	12,257,168

초생추가가격은 산란계가 330~550원, 육용계가 270~32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총선거와 구정시 소비가 증가될 것과 11월에 입추과열현상까지 나타난 점 등으로 인하여 초생추가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했다. 그리고 1월중순의 입추는 구정이 지난해에 물량이 출하되기 때문에 입추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금까지 2년간 초생추 출하상황 및 부화장실태조사, 정부시책시달 등을 해오던 본회 양계기반조사사업이 84년12월을 마지막으로 종결을 보게되었다.

본회는 통계업무를 장기화해 줄 것과 이업무가 생산조절 및 부화장에서 입추조절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시행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계업무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해온 조사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85양계인 신년인사회

- 1월1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

1985년도 양계인 신년 인사회가 1월10일(목) 오후 6시부터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본회 고문, 이사,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장단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인사회는 건국의 양계인 40여명이 참석하여 1985년 새해를 맞아 상호인사와 양계산업의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교환하였다.

본회는 매년초 양계인 신년 인사회를 회장단의 후원으로 개최하여 양계인의 단합과 안정된 발전의 의지를 한데 모아왔다. 특히 이번 모임은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원장 왕준연)에서 계란·닭고기를 이용한 양계요리로 음식을 차려자리가 한결 돋보였다.

본회인사

본회 경북지부(지부장 박규병) 사무장에 84년도에 경남북지역(경북주재근무) 기반 조사요원으로 근무해온 정기윤씨를 1월4일자로 발령.

12월 육계분과위원회개최

- '85분과위원회 활성화 대책논의 -

과년도 12월 육계분과위원회가 지난 12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분과위원과 일반육계 생산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전망검토에서 생체가격은 840~900원선이고 초생추가가격은 250원~320원으로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병아리가격의 상승에도 생산가들이 입추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었으나 총선거와 구정물량으로 입추과열 현상까지 나타나고있고 초생추 출하량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1월 입추는 신중을 기할것을 당부했다.

84년을 결산하면서 육계 출하물량은 거의 체화현상이 없으면서 가격은 생산원가를 밀도는 현상으로 전체 소비물량이 전년에 비해 30%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논의되었다.

본회의에서는 85년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육계분과위원은 물론 모든 육계 생산자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보다 정확 신속 광범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외적인 육계 관련문제도 분과위원회 스스로 해결

할수 있도록 약간의 기금을 적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월 1만원씩을 모금하기로 했다.

85년 첫 분과위원회는 오는 1월28일(월) 오후 2시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육계 생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양계관련 닭계열화생산 ·

수매비축사업 등 지원

- 85년도 축산진흥사업 계획 확정 -

금년도 축산진흥사업계획이 발표된 바 양계관련사업은 닭 계열화생산촉진, 닭경제능력 검정소 자립운영 지원, 닭고기 수매비축, 기타 등으로 다음과 같다.

지난 수년간 본회가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는 계열화생산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각종 자료소개, 세미나개최, 선진지시찰 등을 통하여 정책자료를 개발, 제도 개선택을 대정부건의한 바 작년 축산법개정과 함께 닭계열화생산을 적극 추진케 된 것이다.

정부는 닭고기의 수급과 가격안정, 유통개선을 위해 축협과 본회가 추천하는 민간업체 등 3개 계열주체를 통하여 연간 약 6백만수 정도를 생산해 낼 예정이다.

또 닭경제능력검정소 지원은 본회 검정소가 현대적 시설로 84년도에 완공됨에 따라 금년도 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본회에서 지원요청을 한 바 새로운 계사에서 능력검정업무를 개시하는 금년도에 자립운영을 유도키 위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닭고기의 수급불균형으로 생산된 닭가격이 경영비이하로 폭락하는 경우 축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시하는 협회나 단체를 통하여 수매비축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50만수) 수매비축 요령은 축협중앙회 세부 실시요령에 의한다.

이밖에도 쇠고기 위주의 축산물소비구조를 닭고기·돼지고기로 전환시키고, 밀도계 보상금 지급(해당 축산물시가 표준액의 반), 위생도계 육 유통 정착, 추백리·마이코플라즈마 검진사업, 가축혈청학적 조사사업 등이 있다.

「축산진흥」 주제 시각 디자인전시회

-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에서 창립전가져-



축산진흥을 주제로한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회장 이인자) 창립전시회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의 후원으로 축산진흥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식생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여망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실에는 양계관련의 40여점의 각종 축산에 관한 작품이 선보여 일반소비자에게 하여 축산제품의 인식제고는 물론 관련인들의 축산홍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바 있다.

이번 창립전의 주제를 「축산진흥」으로 설정한데는 식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필요성이 필연적이고 이에따라 축산진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설정한 것이다.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는 83년에 창립하여 전국14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53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사소독방법 시정에 대한 건의서제출

- 본회와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농수산부장관 · 보사부장관에게 -

본회는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유윤수)와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사의무소독에 대한 시정 건의를 지난 1월7일 보사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했다.

이 건의서는 전염병예방방법 및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11,459호(84.6.30))에 연건평 3백m²이상 축사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업자에 의해 소독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나 축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시정을 건의케 된 것이다.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의서

농수산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정의사회구현과 선조국창조에 진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의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축산진흥을 위하여 각종 지원은 물론 안정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축농가 일동은 합리적인 양축 경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제반법규의 준수는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바에 의거 정기적으로 축사 및 가축의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는 83년 12월 20일자로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공포(법률 제3662호)하여 연 건평 300cm² 이상의 축사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2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방법 시행령 11,459호(84.6.30)) 이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규정과 상반된 조치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축의 방역을 초월하여 공중위생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인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양축농가에게 또다시 이중의 조치를 함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론 가축에게 스트레스만 주게되는 등 소독의 실효를 거둘수 없고 합리성 없는 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가. 83. 6. 30 현재 농수산부 가축통계에 의한 의무소독 대상농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소 목장	2,487호 (30두 이상)
양 돈 장	10,681호 (50두 이상)
양 계 장	4,325호 (3,000수 이상)
계	17,493호

나. 83년도 전국의 세균소독제와 살충제 사용실적은 다음 표와같으며 약제비용 총액이 삼십삼억사천오백만원(₩ 3,345,000,000)으로 1개 농장당 약 20만원의 소독용 약값을 지출한 결과로 이는 각 양축농가가 자율적인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음.

연도별 소독제(방충 살충제 포함) 사용 실적표

단위 : 백만원

년 도	'79	'80	'81	'82	'83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소 독 제	291	268	375	831	1,246
방 충 살 충 제	175	172	211	1,473	2,099
계	466	440	586	2,304	3,345

자료 : 동물약품협회

- 다. 대부분의 목장은 주택가와 격리된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체 전염병 방제와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라. 현재 일부시군에서는 자율적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농장에 소독명령서가 발부되어 법의 모순을 통탄하며 정부에 대하여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마. 대부분의 종축장이나 종계장에서는 고정관리인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있으며 SPF(특정 병원체 청정농장) 농장은 축사내부에 들어갈 때는 샤워(목욕)를 하고 옷을 갈아 입고 있으며 출입문에는 에어카텐을 설치하고 입기, 배 기구에는 미생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필터시설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

2. 문 제 점

- 가. 자기 소유 가축의 보호는 물론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기적인 방역을 철저히하는 양축농가에게 가축사육에 상식조차 없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타율에 의한 강제 소독을 실시토록 함은 정부시책의 불신평조 조성 과 관과 민의 위화감만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나. 대부분의 목장에서는 방역상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농장 저농장을 전전하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토록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로 오히려 소독업자가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음.
- 다. 가축 특히 소가축은 외부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정 관리인이 아닌 제 3자가 축사에 출입 또는 소독을 강행할시 가축의 스트레스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우려가 있음.
- 라. 소독시는 축사와 가축을 분리 소독함이 마땅하나 현행 전염병 예방법상에는 축사와 가축소독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독약의 선정 및 소독시행상에 소독업자와 양축가 간에 시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소독약을 잘못 선정

또는 잘못 사용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생산성 하락과 소독업자와 양축가간의 시비로 인하여 가축 및 기물 손상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우려가 있음.

- 마. 소독업자가 양축가의 눈을 속여 냄새만 피우는 등 형식적인 소독을 하거나 목장의 거리, 위치 등을 빙자하여 지정요금 외에 과외 요금을 요구하는 등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바. 전염병 예방법(보사부 소관)에 의한 강제소독의 실시를 강행할 경우 가축 전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어 긴급소독을 요할시 양축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5조 및 제 6조의 소독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업무추진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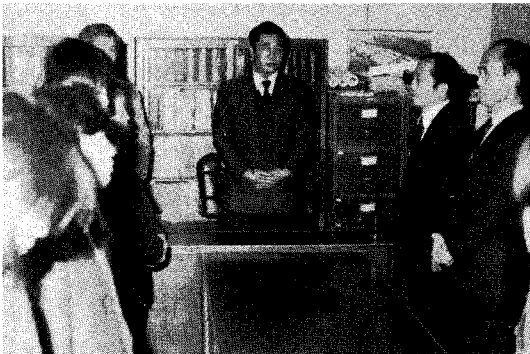
3. 대책건의

- 가. 축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고정관리인이 아닌 제 3자(소독업자)로 하여금 강제소독토록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가축 전염병 예방법시행 규칙 제 5조 규정 별표 2에 의한 소독방법과 소독기준에 의거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자율적인 소독을 실시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 나. 보사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축사의 강제소독 규정을 폐기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5. 1. 8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이 상 운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전 동 용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유 윤 수

1985년도 시무식 거행



△ 1985년도 시무식

본회는 지난 1월 4일(금) 오전에 이상운 회장과 신흥종부회장, 집행부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1985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상운회장은 「지난 84년도에는 직원들이 협심하여 대과없이 잘 마무리했다」고 치하하고 금년도에도 양계산업안정화, 인화단결, 친절봉사로 매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통(구조)개선, 소비증대, 생산조절 및 가격안정 등 12개 주요사업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분회 사무실 이전

본회 광주분회(분회장 빈재훈)는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하고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육계, 채란회원들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

주소: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2리 27-63
전화: 2-3926